

나주 송월택지 매입자 “재산피해 보상하라”

市, ‘도로서 3m 후퇴 건축’ 규정 사전에 알리지 않아

평당 360만원 토지 20% 무용지물 될 판… 소송제기

나주시가 송월지구 택지를 분양하면서 건축한계선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분양받은 토지소유자가 건축행위 과정에 재산상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등 말썽이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송월동 1300번지 일대 29만8320㎡를 지난 2005년부터 공영개발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해 지난해 12월 분양했다.

하지만 해당택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이 도로에서 최고 3m 이상을 후퇴해 건축행위를 하도록 규정, 분양받은 토지소유자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K(54·광주시)씨는 “택지분양 과정에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

리지 않아 평당 360만원에 분양받은 토지의 20% 가량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이 때문에 나주시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건축과정에 발생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택지의 경우 20~30m 도로가 접한 상업용 택지는 도로부지에서 3m, 15~16m 도로가 접한 택지는 2m를 뒤로 후퇴해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제한, 이 때문에 분양받은 택지의 20% 가량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보통 도로경계선에서 1m, 주거용지는 2m로 건축경계선을 완화했다.

후퇴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경우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택지를 조성하는 지구단위 조성계획에 도시경관 계획이 포함되다 보니 발생된 문제다”며 “지구단위 조성계획 당시 담당 공무원이 많이 바뀌다 보니 분양당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나주시는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전남도에 변경고시를 의뢰, 지난 1일 상업용지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1m, 주거용지는 2m로 건축경계선을 완화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신안출신 80대 기업인

20년간 고향에 장학금

신안군 안좌면
출신 80대 기업인
이 공익법인을 설립, 20여년간 고향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재단법인 성산
공익재단 김성수(84) 이사장은 최근 신안교육청(교육장 나연수)을 방문, 관내 중·고등학생 22명에게 장학금 510만원을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학생들이 도시 학생들에 뜻지 않은 재능과 가능성 을 지니고 있음에도 가능성 편이 어려워 청운의 꿈을 제대로 꾀우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한 나머지 지난 1995년 공익법인을 설립, 매년 지역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성산공익재단은 김 이사장 개인 재산과 뜻있는 인사들의 출연으로 설립, 그동안 신안과 경기도 의정부 지역 학생 600여명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김성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학사업 규모를 더욱 키워 고향의 후학들이 사회의 동량으로 끊임없이 커 나갈 수 있도록 돋고 싶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전남 막걸리 생산자 연합회 결성

산업 경쟁력 키우고 쌀 소비 촉진 기대

전남도가 지역 막걸리 생산업체들을 중심으로 자생연합 조직을 만들어 막걸리산업 활성화 및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막걸리 생산업체 대표 50여 명이 광역단위 막걸리 생산자 조직으로 전국 최초로 ‘전남 막걸리 생산자 연합회’(회장 김종삼·이하 연합회)를 결성했다.

연합회는 지난 8일 창립총회를 갖고 22개 시·군 막걸리 생산자 연합회의 회합과 막걸리 산업 활성화 협원을 담아 솔직 개봉식을 가졌다.

또한 회합원에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막걸리 생산과 소비 확대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조만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전남 막걸리 소비촉진 및 품질 향상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차별화된 제품 개발 ▲원자재 공동구매와 관계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막걸리 시장 진출로 소규모 양조장을 판매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생산자 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저가의 가격경쟁력에서 벗어나 고급화 전략을 통한 차별화된 명품 막걸리를 생산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고성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삼 연합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지켜온 막걸리가 이제는 산업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연합회가 지역 막걸리 생산업체의 공동이익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지역의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 전남 막걸리를 차별화하고 농업인과 막걸리 제조업자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막걸리가 유망 식품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세 얼굴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최선”

장 광 일 한전 장흥지점장



하는 등 정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출신인 장 지점장은 광주상고와 조선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8년 한국전력에 입사해 전남 본부 자체과장·목포지점 영업부장·신안지점장 등을 지냈다. 취미는 등산.

또 장 지점장은 “부족한 회전 면 지역 공급선으로 1회선을 증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화순에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설립

향후 5년간 국비 372억원 지원된다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IME 한국연구소를 화순에 유치하기 위한 대형 국책사업 국비지원이 확정됐다.

9일 전남도와 화순군에 따르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1년 예산안에 화순군의 속임 사업인 독일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설립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돼 향후 5년간 372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유치를 위한 정책사업비 2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군은 내년에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연구원이 파견돼 백신과 의·생명공학, 한방의약에 관한 연구에 첨벌을 내딛게 된다.

또 프라운호퍼 IME 화순연구소는 바이러스백신, 박테리아백신 등 백신 연구개발과 의·생명공학, 천연원·해양자원·한방자원을 활용한 응용의학 분야 등 10개 분야로 나눠 부문별 연구 활동에 돌입, 새로운 백신 개발에 몰두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19일 오전 9시 순천 청소년수련원을 출발해 계곡산 MTB코스장 일원 40km 구간에서 열린다.

종목은 산악자전거 크로스컨트리(XC)부문이며 초·중급 일반, 여성, 학생, 시니어, 베테랑 등 총 9등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겨울에 열리는 MTB 참가하세요

19일 순천서 ‘도지사배 산악자전거대회’

전남도가 사계절 온화한 남도의 기후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동계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오는 19일 순천 계족산 일원에서 ‘2010 전남도지사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레저스포츠 관광객을 유치하고 순천만 등 생태관광자원과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19일 오전 9시 순천 청소년수련원을 출발해 계곡산 MTB코스장 일원 40km 구간에서 열린다.

종목은 산악자전거 크로스컨트리(XC)부문이며 초·중급 일반, 여성, 학생, 시니어, 베테랑 등 총 9등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산악자전거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전남 MTB연합회 홈페이지(www.jmtb.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1인당 3만원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곡성군 관광객 꾸준히 증가

클린 숙박업소 만들기 나서

곡성군이 관광객들의 희망을 위해 ‘클린 숙박업소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과 기차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머물러 가는 ‘관광 곡성’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선 숙박업소의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6일부터 관내 15개 숙박업소의 위생지도에 나서는 한편 업주들을 대상으로 2개월에 한 차례 씩 친구관리와 위생, 청결한 손님맞이 등 고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가운 곡성군 위생관리담당은 “‘클린 숙박업소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곡성을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 또다시 찾아오고 싶은 고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금산공인중개사

대인동삼일부동산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서구 마루동, 생산녹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출 농협7억 김대중くん센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화순구 토지 매매

광동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 15,818㎡(4,784평)전용 되어있음, 건축물 637.46㎡(192.83평), 현재 썰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 321㎡(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 2억1천5백만원 월 740만원(부가기자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 12억원

■ 본 광고물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FAX)223-1772 훈 011-602-2322

(광주은행 신도점)(대한농협은행)

상무 우리은행에서 50m지점

GG경매컨설팅(주)

대표이사 노한구 ☎ 222-1907
공인중개사 010-9311-1907

▶ 아파트

• 위치: 법원입찰장 건너편
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

▶ 상가주택

• 소재지 대지/건물㎡ 금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수원동 662/301 3억3천만원 29억7천만원 수원동

월곡동 206/153 2억1백 1억1천만원 단독주택

월계동 230/393 2억6천만원 3억6천만원 단독주택

남구 백운동 347/273 3억4천만원 2억4천원 단독주택

신민동 211/291 3억5백 1억2천원 단독주택

동구 월동 257/621 4억6천만원 3억4천원 단독주택

월동동 125/127 1억2천원 1억2천원 단독주택

서구 광동동 225/567 4억1천만원 3억2천만원 단독주택

광동동 9106/334 7억8천만원 5억5천6백원 청고다촌

▶ 숙박시설

• 소재지 대지/건물㎡ 금정가 최저가

동구 학동 297/1204 8억2천만원 4억2천2백

온천동 375/615 8억6천만원 3억6천만원

광산구 활동 341/993 7억5천만원 4억1천만원

동구 문동동 992/1357 17억4천만원 12억2천